

베이비부머 세대 삶의 웰니스 변화에 관한 연구

장유미*, 허영림**, 정면숙***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Wellness Change of Life in the Baby Boomer Generation

Yu-Mi Jang*, Young-Lim Hur**, Myun-Sook J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angshin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의 저 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정책들과 함께 이 세대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대 삶의 웰니스 요인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에서 태어난 년도가 1955년-1963년생 가구원을 중심으로 삶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생활수준, 건강, 수입, 직업, 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의 만족은 직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 또한 직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수입에 대한 안정이나 만족보다는 앞으로 삶을 위한 보장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웰니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원만한 가족관계가 중요하였다.

주제어 : 베이비부머세대, 노인고용정책, 가정친화정책, 삶의 웰니스, 직업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how the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population aging may affect the life patterns of the baby boomers and what facto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viding life wellness. This study uses the data provided by Korea Welfare Panel Study published between the years 2006 and 2011.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the year 2006,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wellness are family relations, health and social relations. However, between the years 2007 and 2009, the major factor is not the present income providing security or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next significant factor in improving the wellness of life is family relations after health or occup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m with re-employment programs prior to their retirement through which baby boomers can find employment similar or different to their present occupations. For improving the wellness of lif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s family relations.

Key Words : baby boomers, senior employment policy, family-friendly policy, wellness of life, occupation

Received 13 November 2014, Revised 20 December 2014
Accepted 20 March 2015
Corresponding Author: Jung Myun-Sook(Nursing Management)
profmsjung@hanmail.net
Email: jangyoume@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08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학의 코호트적 세대개념에 입각해서 보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집단의 중심이 바로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 상승으로 광범위하게 출현한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중에 현재 약 732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예비 노년층이라 볼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쟁 후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도 교육에 열의를 불태워 고등교육을 마친 세대이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앞섰고, 과도한 입시경쟁과 실업문제, 주택문제 등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겪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지닌 세대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중추였지만 IMF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며 조기은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집단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노후세대는 현재의 노인들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특히 현재의 저 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과 함께 이들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변화되고 삶의 만족 요인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세대에 관한 연구나 베이비붐 현상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고 상업적 목적의 세대 담론과 정치 분야에서의 세대논의만이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주목한 당사자가 학계가 아닌 업계가 다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위치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규명을 한다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 사려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들과 함께 이 세대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 세대가 느끼

는 삶의 만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요인과 관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분단의 아픔, 산업화의 전쟁, 민주화의 실현, 정보화의 진행, 세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변화만큼이나 세대 간의 코호트 특성이 강하며, 세대의 명칭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전쟁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419세대, 516세대, 유신세대, 386세대, X세대, N세대 등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코호트 특성은 한국전쟁 직후 출산장려정책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으나 1962년부터 시작된 국가 경제개발 과정의 혜택을 받은 고학력 시대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66달러(1955년)에서 2만 달러(2007년)로 상승시켜 경제성장의 신화를 창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빈곤한 농업기반 사회를 지식정보화의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시킨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을 위주로 한 국가 정책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겐 개인적 행복보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도록 요구하였고,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 속에 세대 간에 대립되는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향한 변혁과 심화되는 국제화와 세계경쟁 등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나일주외, 2008)[2]. 사회적으로는 1997년 IMF로 인한 기업의 강제 퇴출과 기업도산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 등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국가로 부터의 소외를 경험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개인과 가정문제고 고민하게 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에 이르러 여성의 고학력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진출도 확대되었다. 이 시기를 거치며 그간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중의였던 남성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되며 여성들의 고학력과 활발한 사회진출로 인한 가정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저 출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므로 2016년 3,619만 명으로 절정에 달한 뒤부터는 계속 감소하게 되어있다. 이

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2.2 베이비부머 세대와 삶의 질

사실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성공적인 은퇴와 관련이 있다. 은퇴 후 삶을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으로 본다면 허빅허스트(1968)는 성공적인 노화를 노화과정에서 스스로 자신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적응문제는 개인의 성격, 사회적 환경, 신체적 건강상태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3].

고승덕(1995)은 성공적인 노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삶의 질은 노인 개개인이 갖는 특성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4]. 김태현 외(1999)는 성공적인 노화를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자아 개념 등이 장기간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결과라고 하였다[5].

김기순(2002)은 월수입, 운동종류, 자아존중감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Larson(1977)은 경제적 상태와 삶의 질에 대하여 수입과 주관적 안녕상태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고[7], 김연희(2002)도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6]. 이와 같이 높은 수입과 경제적 안정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은 곧 삶의 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겠다.

Magilvy(1985)는 은퇴 후 삶의 질과 건강은 긍정적 관계에 있다고 하였고[8], Larson(1977) 역시 노화에 따른 신체적 약화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7]

김중숙(1987)은 가족관계, 특히 배우자의 유무가 심리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9], 장혜영(1988)은 가족의 지지는 장기간 계속되는 문제나 갈등이 일상생활의 적응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노용균(1998)은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만족감을 느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건강과 역할을 포함한 능력의 유지, 편안함, 정신적 건강이 필수적이라 하였다[11]. 베이비부머 세대는 다른 연령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

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퇴직과 고령화의 과정이 시작되면서 경제·사회활동에서 소외되며 이는 경제적·심리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가정과 사회에 부담이 된다.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역할상실과 사회적 관계 변화를 맞게 되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생각 즉, 삶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개인의 삶의 만족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적인 변화를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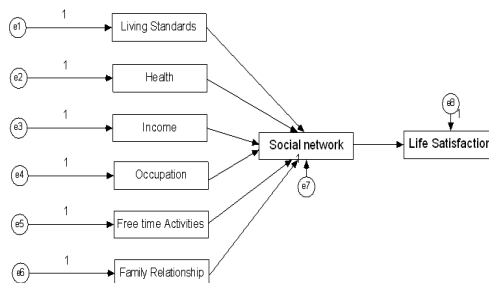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태어난 년도가 1955년-1963년생 가구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일한 자료로 확인된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데이터만 분석하였다.

3.2 자료분석

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Study model

분석한 변인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확인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수준, 건강, 수입, 직업, 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전체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삶의 질 변화를 확인하였다. 서론에서 제

시하였듯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상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을 돌아보는 은퇴연령이 대부분인 점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 프로그램인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형(structural model)을 동시에 고려하고, 측정변수의 측정오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Klein and Moosbrugger, 2000; 배병렬, 2005)[12,13]. 구조방정식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기본적으로 절대부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부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NNFI), 간명부합지수인 AIC(Akaie-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고자 한다. $RMSEA \leq .05$ 이면 모델오류의 정도가 아주 작은 아주 양호한 모델로 평가하고, $.05 < RMSEA < .08$ 이면 그런대로 괜찮은 모델로 평가하고, $RMSEA \geq .10$ 이면 부합도에 문제가 있는 형편없는 모델로 평가한다. 반드시 90% 신뢰구간에 따른 RMSEA의 상한치를 확인한 다음 상한치가 평가기준 .10이하가 될 경우에 모델이 자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한다(문수백, 2008, 엄동문, 2009)[14,15]. 또한, NNFI $> .90$ 이면 만족할 만큼의 향상을 가져온 좋은 모델로 평가하고, CFI는 $> .90$ 이면 부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간명 부합도지수로 AIC의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모델이며, 모델간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AIC 모델이 우수한 모델로 평가한다(홍세희, 2000; 김계수, 2004; 김원표, 2008)[16,17,18].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한 본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수정 없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구조방정식 분석을 시도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베이비부머 세대의 2006년

<Table 1>를 통해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와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든 변량들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족관계와 건강이 사회적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 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 여가, 수입, 생활수준의 순이었다.

Table 1) Fit Index in 2006

χ^2_M	df_M	p	RMSEA		CFI	NNFI (TLI)	AIC
			LO90	HI90			
602468	21	.000	.063		.740	.528	2016.192
			.061	.066			

4.2 베이비부머 세대의 2007년

<Table 2>을 통해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와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든 변량들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족관계와 직업이 사회적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 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 여가, 수입, 생활수준의 순이었다.

Table 2) Fit Index in 2007

χ^2_M	df_M	p	RMSEA		CFI	NNFI (TLI)	AIC
			LO90	HI90			
1291.29	42	.000	.056		.750	.648	1292.21
			.054	.057			

4.3 베이비부머 세대의 2009년

<Table 3>를 통해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와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든 변량들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족관계와 직업이 사회적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 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 여가, 수입, 생활수준의 순이었다.

Table 3) Fit Index in 2009

χ^2_M	df_M	p	RMSEA		CFI	NNFI (TLI)	AIC
			LO90	HI90			
1968.45	64	.000	.053		.680	.555	1969.83
			.051	.056			

4.4 베이비부머 세대의 2011년

<Table 4>를 통해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와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든 변량들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족관계와 직업이 사회적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 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 여가, 수입, 생활수준의 순이었다. 또한 2006년부터 비교했을 때, 사회적 관계로 인한 삶의 만족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it Index in 2011

χ^2_M	df_M	p	RMSEA		CFI	NNFI (TLI)	AIC
			LOGO	HI90			
2242.85	84	.000	.065		.680	.442	2244.69
			.064	.066			

5. 결론

선행연구에 의하면 봉급생활자의 50%는 50대 중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였으며, 베이비부머 세대 중 남성취업자의 77% 이상, 여성취업자의 66%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였다[19]. 본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의 만족은 직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 또한 직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첫 번째로, 2007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 수입에 대한 안정이나 만족보다는 앞으로 삶을 위한 보장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전소득이나 부동산, 연금형태의 소득은 적으며,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고령화 단계에 접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들이 생활비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생활보장을 위한 재취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2007년 이후 직업여부, 직업교육과 만족이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취업의 의미는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퇴직 시기에 도달한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퇴직으로 인하여 현재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 위축과 취업의 의사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취업이 쉽지 않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 정년단축, 연봉제, 계약제와 같은 고용형태의 취업 유형의 다양화 등은 어쩌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공적으로 재취업하는 것 보다 장기실업자로 낙오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들은 장기근속과 연령에 따른 높은 연

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기업에서 조차 퇴출 1순위로 자리매김 되는 현실이다.

이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직과 이직을 지원하는 퇴직 전 프로그램과 구조화된 고용정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직업에 대한 것만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원만한 가족관계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고도의 성장기에 교육을 받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관계보다는 일과 성취감에 더 큰 목적을 둔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타인과 가까이 함께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친화정책, 여가활동의 배려, 가족 부양부담 감소 정책과 같은 함께 시간을 나누고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f the Aged, Seoul: Statistics Korea Press, 2008.
- [2] I. J. Rha, C. Y. Lim, S. H. Park, Preparing for the Retiring Baby Boom Generation(RBBG) in Ko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 Vol. 42. pp. 151-174, 2008.
- [3] B. Neugarten, R. J. Havighurst, and S. S. Tobin,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in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4] S. D. Ko, An Analyt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wha Womans, Seoul, 1995.
- [5] T. H. Kim, D. B. Kim, M. H. Kim, Y. J. Lee, A. S. Kim,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ety, Vol. 19, No. 1. pp. 61-81,1999
- [6] Y. H. Kim and K. S.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Quality of

- Life of the Elderly, Ko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7. pp. 157-189, 2002
- [7] R. Larson,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on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Vol. 33, No. 1, pp. 109- 125, 1977.
- [8] K. Magilvy, Quality of life hearing impaired older women, Nursing Research, Vol. 34, No. 3, pp. 140-144, 1985.
- [9] J. S. Kim,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wha Womans, Seoul, 1987.
- [10] M. H. Ahn, A Study on Motivations for Smart Phone Use and Use Patterns according to Life Style of Baby Boom Genera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Ewha Womans, Seoul, 2012.
- [11] Y. K. Noh, Quality of Life Scale,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 19, No. 11. pp. 1043-1050, 1998.
- [12] A. G. Klein, and H. Moosbrugger,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latent interaction effects with the LMS method, Psychometrika, Vol. 65, No. 4, pp. 457-474. 2000.
- [13] B. R. Bae, LISREL Structure Equation Model(SEM), Seoul: Chungnam Press, 2005.
- [14] S. B. Moon, Application of Structure Equation Model(SEM). Seoul: Hannarae Press. 2008.
- [15] D. M. Yeu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deaf identity scale of hearing disabled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yungshung, Busan, 2009.
- [16] S. H.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Journal of Korea Psychology Study, Vol. 19, No. 1, pp. 63-78, 2000.
- [17] K. S. Kim, Structure Equation Model(SEM) Analysis by AMOS . Data Solution, 2004.
- [18] W. P. Kim, Structure Equation Model(SEM) Analysis used Aoms. Society & Statistic. 2008.
- [19] Korea Labor Institute, A Study on Baby Boom Generation Work Life in Korea, 2010.

유 미(Jang, Yu Mi)



- 2011년 2월 : 경성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1년 2월 :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 박사)
- 2015년 2월 :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장과 분배, 노동과 고용, u-Health & u-Wellness
 · E-Mail : jangyoume@hanmail.net

허 영 림(Hur, Young Lim)



- 2004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5년 2월 :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 관심분야 : 조직문화, 직무만족, 감정노동

· E-Mail : hurylim@naver.com

정 먼 숙(Jung, Myun Sook)



- 1981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국립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Healthcare Marketing, Nursing Informatics, Image of Nursing, Nursing Productivity
 · E-Mail : profmsjung@hanmail.net